

박두리의 '대지의 꿈 - 사계'에 부처 - 대중과 소통하는 문화 콘텐츠 -

윤익영 | 미술사가
창원대학교 교수

박두리는 군내외에서 20여회의 개인전을 펼치며 활동하는 열정의 작가이다. 최근 들어서는 특히 마산을 중심으로 펼친 활발한 벽화제작으로 눈길을 끌고 있어 그녀의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그녀가 벽화에 처음 관심을 보였던 것은 2006년에 마산 MBC 문화방송의 외벽을 장식한 것이었는데 그 때의 작품은 미술계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인사들과 기업인들에게도 상당한 호감을 샀다. 그녀의 예술적 기량과 상쾌한 화풍은 대중들과의 편안한 교감을 나누기에 충분했었고 이 같은 그녀의 역량은 곧 대우 백화점의 옥탑 외벽 벽화로 이어지게 됐다. 그 벽화 작업은 많은 재료비와 고된 공정이 따르는 힘겨운 제작이었다.

좋은 벽화를 남기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녀는 걸으로는 보이지 않는 밑 작업에 오히려 더 정성을 쏟았으며 벽화의 칼라가 제 색깔을 내도록 끈기 있게 세심한 과정을 거쳤다. 시민들은 어느덧 그녀의 벽화와 친숙해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대중과 소통하는 미술 문화 콘텐츠가 우리에게 매우 절실함을 느꼈다. 대중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고자 했던 그녀는 오동동 불종거리 통솔골목에 벽화를 그리기도 했다. 물론 우리에게 벽화 문화가 그리 익숙한 것은 아니었다. 벽화의 기법도 발달되지 않았고 제작과정도 녹녹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녀의 진지한 작가적 기질 때문에 그간의 모든 프로젝트가 완수될 수 있었으며 그 치밀한 제작 태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주식회사 무학의 공장에 제작하게 된 '대지의 꿈'은 그러한 정성과 프로 정신이 낳은 귀한 결실인 것이다.

작품의 주제는 생의 원기를 북돋는 활기찬 사계절의 조화이다. 작품 구성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낸 네 개의 사이트 (sight, 풍경) 로 나뉘었고, 병풍처럼 펼쳐진 네 개의 사이트는 각각의 색션을 이루며 '대지의 꿈'을 종합했다. 각 계절의 정기를 담아 완성된 '대지의 꿈'은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기쁨과 생기를 불어 넣는 활력소가 된 것이다.

봄의 사이트는 '꽃과 나무'를 소재 삼아 그랬는데 자연의 강한 소생력과 부드러운 꽃향기의 정령을 표현했다. 봄을 알리는 개나리꽃의 노란색과 새싹의 연두색이 주조를 이루며 화사한 봄날의 정경을 그려냈다. 봄이 오는 소리의 청각적 인상을 추상적인 기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노란 개나리 색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나면 봄을 알리는 새들이 들과 밭에서 지저귀다. 봄의 이미지를 적절히 표현한 것은 무엇보다 봄을 여인으로 비유한 의인화 기법이다. 싱그러움 봄의 이미지를 상큼하고 관능적인 여인들로 비유한 것은 우리에게 생의 약동을 자극하는 데 충분하다.

여름의 사이트는 청록색이 주조를 이룬 '숲과 바다'를 소재로 했다. 바다 이야기와 사유의 숲, 여름밤의 테마로 이어진 사이트이다. 청색의 깊이와 풍요의 모성 이미지가 함축된 색션이다. 바다의 푸른색은 또한 우리의 막연한 꿈과 인생의 거친 모험으로 이끄는 낭만적 이미지가 있다. 여름밤의 하늘색은 초월적 희망으로 빠져 들게 하는 힘이 있는데 이 같은 꿈의 에너지, 한여름 밤의 축제가 추상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여름 사이트이다. 하늘의

별빛과 항구의 불빛은 서로 하나 되어 아롱거린다. 그런가하면 녹색 주조의 풍경 이미지들은 휴식과 행복한 음료가 흐르는 안식처를 연상케 해 줌으로서 정신적 쉼터로 안내한다. 거기서 우리는 깊은 호흡을 하며 조용히 삶의 가치를 음미해 볼 수 있다. 그녀는 이것을 사유의 숲이라 했다.

그러면 가을의 사이트는 '현실의 일상생활'에 초점을 두었다. 여름밤의 사유가 현실 너머의 세상에 관한 것이었다면 가을의 사색은 어제와 오늘의 일상에 대한 사색으로 테마를 잡았다. 자연의 이미지보다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침실과 꽃병, 어항, 자동차와 자전거 같은 도시 생활품들이 그려진다. 무엇보다 연인들의 사랑과 에로티시즘의 심리적 문제가 강하게 표현됐다.

겨울의 사이트는 '산과 대기'를 소재로 삼았다. 차가운 청백색과 장밋빛이 이 사이트를 상징색이다. 적막한 눈 속의 숲과 살얼음이 진 수면, 하얗고 투명한 눈발의 정경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겨울산은 이미 봄을 예고하고 생명을 보듬고 있는 정겨운 풍경으로 묘사된다. 나뭇의 숲은 눈에 덮였지만 그 밑에선 식물들과 동물들의 온기가 흘러나온다. 붉은 기가 감도는 풍경은 초겨울의 새벽을 표현한 것이다. 여명의 붉은 빛이 차가운 겨울의 산과 도시를 봄의 서광을 알리는 것이다.

그녀의 작가 활동이 얼마나 보람 있고 꾸준했었는지는 2000년의 마산 미술인상에 이어 2004년의 동서미술상을 수상하면서 드러났다. 이번에 완성한 '대지의 꿈'은 그에 화답하는 작가적 노고의 결실이라 할 수 있고, 이에는 주식회사 무학의 문화 참여정신이 큰 힘이 되었다. 기업과 예술가들이 뜻을 모아 대중과 소통하는 문화 콘텐츠를 창출해 나가는 것은 어느덧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고, 이 같은 선진문화 사업에 앞장선 박두리와 기업은 뜻 깊은 '대지의 꿈'을 만들어 냈다. 대중들에게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제공해주고 삶의 질을 높여 주게 된 '대지의 꿈'은 지역문화 발전의 부흥을 알리는 굳건한 초석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